

버지니아 울프의 「유산」: 나르시시즘으로 읽기

박 부 순
(전북대학교)

Park, Busoon. “Virginia Woolf’s “The Legacy”: Reading in Narcissism.”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4.3 (2018): 67-84. This study focuses on the libido theory-based narcissism of Sigmund Freud in “The Legacy” written by Virginia Woolf. “The Legacy” is the story of quite a successful politician, Gilbert, who is a self-centered man, unable to concentrate his attention on anyone but himself. There are some reasons to prove he is possessed by narcissism like this. He considers his wife to be his dependency rather than an independent one, being always inferior in intelligence to him. As a narcissist, Gilbert defines others by his own standards. He thinks Sissy Miller, who has always lived as a family helping his wife with her work, is just one of many kind, dull, and small women. He even decides that the B. M. in his wife's diary is a spineless man who talks his opinions among women and has never done honest things during the day. Furthermore, he lives in a world of his own megalomania. His world is so full of distorted reality that it is impossible for him to communicate with others. Even when his wife takes one step forward in her journey to find herself, he is completely unaware of it and only thinks of himself. After all, in his world, where she is only asked for service under the name of wife, Angela chooses death. Her death is believed to give Gilbert a chance to look back on his life and re-establish a relationship with other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Virginia Woolf, The Legacy, Narcissism, Megalomania, distorted reality

I. 서 론

울프(Virginia Woolf)가 활동하던 20세기 초반의 영국은 가부장제로 인한 남성 우월의식, 사회에서는 혼란과 분열, 그리고 정치에서는 독재의 양상이 만연

해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남성의 이름을 사용하여 작품 활동을 한 여성작가들이 있었을 만큼 여성들에게 배타적이었다. 당연히 사회적 계급관계에서 야기되는 인물의 외면에 중점을 두는 일부작가들이 있었다. 울프는 이들을 “유물론자”로 비판하면서 그들에게 “내면을 보라”(“Modern Fiction”161)고 요구하였다. 그녀는 인간의 내면, 즉 객관적인 외양이 아니라 주관적인 의식 또는 무의식 속에서 삶의 실체가 드러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작가가 주목해야 할 것은 포착하기 힘든 삶의 내면의식과 그 내면에서 유동하는 미묘하고 섬세한 감정의 흐름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울프가 주창한 당대 영국소설의 혁신적인 기법인 ‘의식의 흐름’(stream of consciousness)이다.

타고난 섬세한 감수성과 ‘의식의 흐름’으로 탄생된 그녀의 작품은 당대의 남성작가들의 작품과 차별화되기에 충분했다. 『등대로』(*To the Lighthouse*)를 비롯한 몇몇 장편소설과 여성론적 입장을 피력한 강연문집인 『자신만의 방』(*A Room of One's Own*), 그리고 많은 단편소설에서 그녀는 억압받는 여성들의 삶을 묘사했다. 따라서 울프의 작품들이 대부분 소설기법과 여성 주의적 관점에서 연구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남녀 사이의 경계를 넘어 서로의 의식 속에서 합일의 순간을 창출해 내고자 노력했던 울프의 사상과 인간의 의식 상태를 논리적 배열이나 순서로 꿰뚫어 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의 여성문제를 남녀 상호간의 심리학적 측면으로 접근해 보는 일 또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아직 연구가 미흡한 단편소설을 분석하는 시도는 울프의 작품을 다양한 각도로 읽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단편소설은 그녀의 다양한 서술구조를 실험한 공간이자 일종의 정신적 탈출구였기 때문이다.

나는 어디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약간의 철학을 얻었다는 것이 기쁘다. 그것은 일종의 해방감에 해당한다. 나는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쓰며 거기에 목적이 있다.

It seems as if I succeed nowhere. Yet I'm glad to find, I have acquired a little philosophy. It amounts to a sense of freedom. I write what I like writing & there's an end on it. (D2 166)

울프는 이와 같은 단편소설인 「유산」(“The Legacy”)에 주인공인 길버트(Gilbert Clandon)의 내적독백과 의식의 변화를 채워놓았다. 그것은 사망한 아내, 안젤라(Angela)가 남긴 15권의 일기장을 읽으며 순간순간 느끼는 길버트의 감정과 진실을 알아가는 변화의 과정들이다. 마치 울프가 우즈강에 투신자살을 하며 남편, 레너드 울프(Leonard Woolf)에게 남겼던 유서를 통해 독자가 진실을 하나하나 파악하듯이 말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울프가 독자에게 남긴 유산처럼 느껴진다. 유산을 받은 독자로서 기존의 연구방법과는 다른 각도로 작가에게 답례하고자 한다.

「유산」은 여성의 자아추구, 남녀평등의 성 역할, 그리고 의식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논의가 한정되어 왔다. 그러나 1939년 1월 28일 울프는 레너드와 함께 프로이트(Sigmund Freud)를 만났는데, 그때 프로이트는 울프에게 “의식적으로 수선화를 선물했다”(Briggs). 그 후 울프는 “프로이트가 자신의 소설 영역을 확립했다”(Briggs)고 고백할 만큼 그의 나르시시즘사상에 젖어들었다. 또한 더멋(McManus Dermot)이 「유산」을 읽는 독자는 “울프가 자기애의 주제를 탐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1)라고 말한 것처럼 길버트의 삶은 자기애로 구축되어있다. 그는 죽은 아내의 일기장을 보면서 왜 그녀가 죽음을 선택 했을까? 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극찬하거나 자신의 이름이 나오는 부분만을 골라 읽는다. 이러한 장면에서 독자는 그의 ‘나르시시즘’(narcissism)을 포착하기에 충분하다.

나르시시즘은 1898년에 엘리스(Havelock Ellis)가 성도착 사례를 그리스의 나르시시스 신화에 비유하면서 자기애적인(narcissistic)으로 사용한 후, 1899년에 내케(Paul Näcke)는 일종의 성도착증으로, 그리고 1914년에 프로이트는 「나르시시즘에 대하여: 서설」(“On Narcissism: An Introduction”)에서 정신분석학적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프로이트는 이 논문에서 나르시시즘을 ‘일차적 나르시시즘’과 ‘이차적 나르시시즘’으로 구분했다. 일차적 나르시시즘은 유아기의 ‘자아 리비도’로서, 이때 유아는 자신을 전지전능한 존재로 인식한다. 그러나 아이는 성장함에 따라 ‘자아 리비도’를 ‘대상 리비도’로 전환하는 능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세상과 교감, 또는 긴장 관계를 형성해간다. 이 과정에서 어떤 심리적 요인이나 환경에 의해 리비도

가 대상을 향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현상이 이차적 나르시시즘이다(74 참고). 프로이트는 이와 같은 나르시시즘을 정신분열증에서 오는 과대망상이나 인간의 애정생활을 연구방법으로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을 근거로 많은 학자들은 나르시시즘을 다양한 해석과 변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리비도가 자신에게로 향하는 경우, 즉 ‘지나친 자기에’로 한정하여 조사될 것이다. 그 근거는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생각을 절대적인 가치로 인정하는 과대망상을 드러내며, 그에게 있어서는 타자에 대한 사랑도 결국은 자신이 이상화한 대상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맥락에서이다. 프로이트가 이러한 과대망상과 이상화야 말로 “나르시시즘의 낙인”(91)이라고 말했듯이 주인공 길버트 또한 이러한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길버트의 나르시시즘으로 인한 과대망상과 이상화가 어떠한 방법으로 타인을 규정하며, 현실을 왜곡하고 자신만의 환상 속에서 사는지, 그리고 이러한 그의 태도가 아내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 론

2.1 과대망상: 타자 규정하기

컨버그(Kernberg)는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을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에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모습과, 자신에 대한 팽창된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찬사를 받고 싶어 하는 모순된 모습에 있다”고 기술한다(655). 이러한 성향의 나르시시스트는 세상이 오로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과대망상의 소유자들이다. 그들에게 타인의 관심사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세울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움직인다. 이러한 행동을 이기적인 것과 비교하여 바르데츠키(Bärbel Wardetzki)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건전한 이기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보살피며 자신의 욕구를 채울 수 있게 해준다. 이로써 우리는 만족감을 얻고 무난한 동시대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자기중심주의는 오로지 자신의 제국에만 골몰해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타인은 오로지 이 제국을 지지하고 유지하기 위해 존재할 뿐이다. (40)

길버트에게 있어서 안젤라는 자신의 권력과 명성을 쌓는데 필요한 조력자에 불과했다. 길버트는 아내가 외식장소에서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모임에서는 웨딩드레스를 차려입고 자신의 상사로부터 강력한 애정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녀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길버트는 안젤라를 비롯한 여성을 성적 대상 또는 자신을 위해 필요한 존재로 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프로이트의 이차적 나르시시즘에서 유아가 자신을 돌보아 주는 대상을 사랑하듯이 길버트는 자신의 욕구충족은 물론 자신의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 아내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날 안젤라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죽자, 그는 아내의 유품인 일기를 통해 안젤라의 참모습과 죽음에 관련된 진실을 알게 된다. 울프의 다른 소설들처럼 「유산」은 특별한 사건이 존재하기보다는 아내의 일기 내용과 겹쳐지는 길버트의 의식의 흐름 전개를 엿볼 수 있다.

작품의 초반부에 길버트는 아내가 남긴 브로치를 씨시(Sissy Miller)에게 건네 주면서 “다소 어울리지 않는 선물인 듯 보인다. 그녀에게는 돈을 남겨주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을, 아니면 타자기라든가”(1999)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길버트의 사고는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는 당시 중·하류층 계급을 대하는 상류층 남성의 오만과 편견으로, 심리학적 측면에서 보면 자기 안의 세계에 갇힌 나르시시스트가 타자를 규정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어떠한 상황을 사실적이거나 논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편리한 대로 타자의 범위를 정한다. 호치키스(Sandy Hotchkiss)가 나르시시스트의 이러한 행위를 “자격 부여하기”(entitlement)(49)로 설명하듯이 길버트는 안젤라, 씨시, 그리고 비엠(B. M.)을 자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자격을 부여하고 그들을 판단한다.

먼저, 길버트와 아내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는 아내가 자신보다 오래 살 거라고 단정하고 지적인 면에서도 아내가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아내의 일기장에서 정치적 견해를 비엠과 토론했다는 장면을 보자, 만약 “비엠과 정치적 문제를 토론했다면, 그녀는 너무 어려워 이해할 수 없었을 거라고 언급한다”(2001). 그에게 있어서 아내는 순진무구한 어린아이일 뿐이다. 그러므로 아내가 “난 무식해”(2000)라고 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것이 아내의 매력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이 정치인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아내가 최선의 도움을 준 것은 인정하나 그녀의 일상생활은 그저 사소한 일로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아내가 어느 날 자신만의 일을 하고자 했을 때, 길버트는 “자신과 집을 돌보는 일로는 충분하지 않냐”(2000)고 그녀를 놀렸던 기억은 하는데 정작 아내가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 오로지 그는 아내가 일하러 나갈 때 입은 형편없는 옷차림을 자신이 싫어했던 것만을 기억할 뿐이다. 그러므로 아내가 죽고 육주가 지난 지금, 그녀의 일기를 대하는 다음과 같은 길버트의 태도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 것 같다.

일기장에는 이와 같은 언급으로 가득 차 있었다. ‘존스(Jones)부인을 보라 … 그녀는 열 명의 자녀가 있다 … 남편은 사고로 팔을 잃었다 … 릴리(Lily)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그는 건너뛰었다. 그 자신의 이름이 점점 덜 자주 나왔다. 그의 관심은 느슨해졌다. 기록된 내용의 일부는 그에게 아무것도 시사하는바가 없었다.

The diary was full of references like this: ‘Saw Mrs. Jones … She has ten children … Husband lost his arm in an accident … Did my best to find a job for Lily.’ He skipped on. His own name occurred less frequently. His interest slackened. Some of the entries conveyed nothing to him. (2001)

자기중심적인 길버트는 자기(self)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일 외에는 관심이 없다. 따라서 자신의 이름이 줄어드는 순간부터 그는 아내의 일기에 흥미가 떨어진다. 하물며 그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주변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는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길버트에게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한다. 그렇게 아내의 일기를 읽어나가는 길버트는 어느 순간 비엠이라는 약자를 발견하게 된다. 비엠과 아내가 런던 타워에 간 일, “나는 더 이상 00를 매도하는 걸 듣지 않겠다

고 말했다”(2001)라는 아내의 문장을 통해서 길버트는 00가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비엠에게 관심을 가진다. 그는 비엠이라는 글자를 찾아 아내의 일기를 읽어 내려간다. 일기를 통해서 자신이 몰랐던 아내의 비밀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길버트는 오로지 ‘나’에 집중한다. 이러한 속성은 나르시시스트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양상으로서 타인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주된 요소이다. 그런데 어떻게 길버트가 정치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었을까?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한다면 이름에서 보여주듯 ‘집안의 천사’인 안젤라 덕분이라는 사실을 그 어떤 독자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길버트는 또한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기 주관대로 씨시와 비엠의 스테레오 타입을 규정한다. 그는 씨시가 아내와 함께 자신을 도와준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검정색 사무용 가방을 든 우중충하고 자그마한 여성, 수많은 씨시”(2001)중의 한 사람으로만 여긴다. 검정 코트와 스커트를 입고 있는 씨시를 보고 길버트는 안젤라가 죽기 일 이주 전에 그녀의 오빠가 죽었다는 것과 그로 인해 아내가 극도로 흥분했던 사실을 떠올린다. 그러나 아내가 자신에게 그의 사고원인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길버트는 기억할 수가 없다. 그는 자기에 빠져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는 것이다.

길버트는 아내의 일기장 속에서 본 비엠을 “그는 여자들의 응접실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떠벌리는 그런 짓대 없는 일꾼들 가운데 하나”(2001)라고 판단한다. 길버트는 그런 부류를 “땅딸막한 작은 키에, 덩수룩한 수염을 가진, 붉은 색 타이에 그들이 늘 그랬듯이 방모직물로 된 옷을 입은, 자기 평생 낮에 하는 정직한 일이라곤 해 본 적이 없는”(2001)이라고 단정 짓는다. 아내의 일기장 후반부로 갈수록 자신보다 더 빈번하게 등장하는 비엠이라는 글자 자체가 길버트의 나르시시즘에 손상을 가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은 존중받아야만 하는 존재로 생각하면서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비엠을 속단하는 길버트에게 있어서 타인은 자신에게 동의하고 순종하고 위안을 주기위해 존재할 뿐이다.

2.2 이상화: 현실의 왜곡과 환상

프로이트의 일차적 나르시시즘은 유아가 자신의 전능한 힘에 의해 스스로의 욕구를 채운다고 믿는 단계에서 보여 진다(프로이트 74). 이 전지전능한 완벽함에 대한 추구는 인간의 본능이나 성적 충동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나르시시스트들의 완벽함에 대한 추구는 위력적이다. 로스테인(Arnold Rothstein)은 나르시시즘을 ‘완전함의 감각’으로 정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나르시시스트적인 완전함은 실제의 방어적 왜곡-공생단계에서 자기-대상의 행복한 본래의 완전함에 기반을 둔, 감동으로 가득한 환상이다. 완전함의 상실은 아주 흔한 발달과 관련된 모욕으로, 그 중 회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Narcissistic perfection is a defensive distortion of reality—an affectively laden fantasy based on the original perfection of the self-object bliss of the symbiotic phase. Its loss is a ubiquitous developmental insult from which few, if any, human beings ever recover. (Moore 124 재인용)

나르시시스트들은 완전함을 추구하나 실제로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자신만의 환상적인 세계를 구축하고, 그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방어벽을 세운다. 그리고 그 안에 자신은 물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라는 이름으로 가둔다. 이렇게 해서 창조된 자신의 왕국을 다스리기 위해 그들은 주변사람들에게 호의적인 말과 행동으로 위안을 주며 또한 이 세계에 걸맞도록 그들에게도 이상화된 역할을 부여한다. 이러한 “이미지 메이킹의 거장”(Martinez-Lewi 10)인 그들은 완벽함과 권력추구에 대한 환상 속에서 살아간다. 진정한 완벽함이 아닌 자아도취에 빠진 그들은 자신의 특별한 세계를 파괴할 위험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 간단히 무시하거나 생각에서 지우는데 익숙하다. 그들은 자기가 불완전하고 무의미한 존재라는 느낌 자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느낌을 받을 경우, 그는 기꺼이 “마법적 사고(magical thinking)¹, 타인을 이용하는 이상화, 수치심 떠넘기기, 타인 깎아 내리기 등과 같은 전술들”(호치키스 27)을 동원

¹ 어떤 사실에 대한 엄청난 왜곡과 환상을 심리학자들은 마법적 사고라 부른다(호치키스 23).

하여 그 감정들을 회피한다. 그러므로 나르시시스트들은 타인과의 진정한 소통이 불가능하다.

길버트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는 아내와 ‘싸움’(quarrels)이라 부를 수 없는 사소한 ‘말다툼’(tiffs)도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 있다면 그건 일기 때문이었다고 한다(1998). 다시 말해서 그는 아내와 결혼생활 내내 일기장을 제외한 모든 것을 공유했다고 확신했다. 길버트에게 있어서 안젤라는 “무엇인가를 속이는 것은 그녀답지 않았다. 그에게 그녀는 솔직 담백의 화신”으로 각인되어있다(2001). 길버트의 이러한 모습은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선택할 때 보이는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길버트는 “현재의 자신, 과거의 자신,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 과거 자신의 일부였던 이를 사랑하며 의존적 대상 선택의 경우에는 자신을 돌보아 주거나 보호해주는 이”(프로이트 90)로서 안젤라를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안젤라는 길버트의 분신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비엠이라는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스스로 만든 이상세계의 안락함을 위해 안젤라에게 정직하고 순종적이며 현숙한 아내라는 규정된 이미지를 설정하고 그대로 따른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길버트는 아내가 일기를 자신에게 결코 보여주지 않음으로서 자신과 공유하지 않는 삶의 일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길버트에게 있어서 안젤라는 자신의 일부이자 가장 큰 지지자로 ‘이상화된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가 길버트의 ‘의식의 흐름’ 관점에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독자는 그를 꽤 팬찮은 남편으로 인정하는데 어렵지 않다. 아내에게 이따금씩 작은 선물을 사 주고, 저명인사와 만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유럽에서 그녀와 휴가를 보내기도 하는 점 등이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지적인 측면에서도 아내에게 도움을 준다. 그는 아내의 무식을 매력 중의 하나로까지 여긴다.

‘길버트가 베니스의 역사에 대해 최고로 흥미로운 설명을 내게 해 주었다. 그가 말하길, 옛 베니스의 총독들은 ...’ 그녀는 그 모든 걸 학창시절 소녀의 손길로 기록해 두었다. 안젤라와 여행하는 기쁨 가운데 하나는 그녀가 배우는데 매우 열성적이라는 점이다. 그녀는 굉장히 무지한 편이었다. 그녀가 늘, 그 점이 자신의 매력중의 하나가 아니란 듯이 말했지만.

‘Gilbert gave me a most interesting account of the history of Venice. He told me that the Doges ...’ She had written it all out in her schoolgirl hand. One of the delights of travelling with Angela had been that she was so eager to learn. She was so terribly ignorant, she used to say, as if that were not one of her charms. (2000)

그는 아내가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여행하기를 즐겼다. 무지한 아내에게 설명해주면서 우월의식을 느끼고, 좋아하는 아내를 보면서 자신이 최고의 남편임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는 아내의 생각이나 행복의 조건은 관심이 없다. 심지어 아내가 일기를 쓰고 있다가 자신이 들어오면 일기장을 덮곤 했음에도 그는 한 번도 그 이유를 궁금해 해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길버트는 아이가 없는 점에 대해 엄청난 불행이었다는 그녀의 일기장을 보고 이해하지 못한다. 왜냐면 그는 그해 정부에서 작은 직책을 맡게 되어 자신은 인생이 충만하고 풍족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자신의 행복이 곧 아내의 행복이라 믿는 길버트가 만든 환상의 세계는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기에 상대방의 의견이나 감정도 자기 방식대로 판단한다.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돕겠습니다. 당신의 부인을 위해서 기꺼이”(1999)라고 써시가 애정을 담아 말하자 순간 길버트는 그녀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야릇한 감정에 휩싸인다.

그런 게 가능할까, 그가 거의 그녀를 의식하지 못했을 그 모든 세월 동안에, 그녀가, 마치 소설가들이 말하듯이, 그에 대한 연정을 마음에 품는 것이? 그는 거울을 지나치며 그 안에 있는 자신의 반영을 쳐다보았다. 그는 쉰 살이 넘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이, 거울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대단히 이목을 끄는 외모를 가진 남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Could it be, that during all those years when he had scarcely noticed her, she, as the novelists say, had entertained a passion for him? He caught his own reflection in the glass as he passed. He was over fifty but he could not helping admitting that he was still, as the looking -glass showed him, a very distinguished-looking man. (1999)

길버트는 씨시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관심의 대상을 자신에게로 돌린다. 길버트의 관심은 죽은 아내에 대한 애도도 사랑하는 오빠와 친구를 잃은 씨시를 향한 위로도 아닌 오로지 자신인 것이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감탄하며 웃음을 띤 채 아내의 일기장 한권을 펼쳐 들고 읽는다. 그 순간 아내가 자신을 위해 준비된 대답이라도 하듯 그는 “‘길버트,’ ‘너무 멋져 보였다’ …”(1999)에 시선이 고정된다. 자아도취에 빠진 길버트는 아내가 외롭다거나 또는 다른 남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아내가 죽음을 예상한 것처럼, 친구들에게 남긴 선물을 확인하는 순간에도 그는 “그녀가 한 순간만 멈추어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했다라면 지금 살아있을 텐데”(1998)라며 그녀의 부주의함을 지적한다. 길버트의 환상에 현실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이다. 현실은 길버트가 정치인으로 성공한 것도 아내의 헌신적인 내조 덕분이고, 또 그녀의 도움을 받아 앞으로도 더 전진할 수 있는 꿈을 꾸면서도 말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정치인생에 더 큰 도박을 꿈꾸는 길버트는 “남편은 수상이 될 수 있을 거야”(2000)라는 일기내용에서 안젤라가 늘 그렇듯이 자신에게 확신을 주는 대답처럼 느낀다. 언제나 안젤라는 남편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길버트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녀를 착취했던 것이다. “세상의 갈채가 나르시시스트들의 왕관을 빛내는 보석”(마르티네즈 루이 51)이듯 안젤라의 찬사는 길버트의 성공을 위한 양식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버트는 아내의 삶을 이루었던 사소한 일상, 즉 그녀가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을 도우며 자신을 돌아보고 자아를 깨달아가는 페이지들은 무시하고 읽지 않는다. 현실을 깨닫는 순간 자신의 자아도취는 물론 굳건히 세워놓은 환상의 세계가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을 길버트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상의 세계에서 길버트의 욕망은 끝이 보이지 않는 지평선이었다.

2.3 안젤라의 죽음

나르시시스트들은 부풀린 자아를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맘껏 쏟아내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의 소유자들이다. 그들은 이와 같은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주변에 세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신을 더 똑똑하고 창조적이고

현명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자들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그들은 자신이 경쟁에서 성공했다는 우월한 감정을 느끼기 때문이다. 마르티네즈 루이는 이러한 나르시시스트의 고착화된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기도취적인 사람은 자신과 타인을 심리적으로 구분하지 못한다. 모두가 그의 일부이므로 그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대할 수 있다. 자기 도취자는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자기만의 생활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못한다. 그 결과 자기 도취자는 오로지 그를 위해서만 행동해야 하는 물건처럼 타인을 대한다. (204)

이와 같이 각자의 영역이 존중되지 않는 나르시시스트와 타인과의 관계는 항상 파국으로 치닫는다. 그것은 재정적 파탄이나 감정적 유린, 신체적 질병, 심지어 죽음으로 종종 막을 내리기도 한다. 이들의 관계는 얼마만큼 지속되었는지에 상관없이 급작스럽게 종료된다.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목적에 더 이상 타인이 소용없거나, 혹은 타인이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막바지 상황이 오기 때문이다. 안젤라와 길버트의 관계를 살펴보면 “나르시시스트와 밀접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복종하는 아이의 역할에 갇힌다”(마르티네즈 루이 187)고 설명하듯이 안젤라는 길버트에게 복종하는 아이의 역할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남편이 계속해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본 좋은 행동만 하는 모조품으로 산다. 결혼 초기에 남편이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그녀는 자신의 삶이 아닌 남편을 위한 삶을 살았다. 그녀의 일기는 “길버트는 정말 매력적이었다. 그의 아내라는 것이 너무도 자랑스럽다”(2000)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그녀의 삶은 남편이 정치인으로 출세하는데 최선의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성공한 남편이 자신의 일에 빠져들자 안젤라는 점점 고독감을 느낀다. 그녀는 남편이 아닌 자신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써 안젤라는 자아를 찾기 위한 순례의 길을 떠난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바쁜 남편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몇 번의 기회 끝에 자신만의 일을 하고 싶다고 고백했다. 물론 길버트는 아내가 얼굴을 붉히며 했던 말과 자신이 그녀를 위한다는 명목 하에 반대하지 않았던 일을 기억했다. 그러나 안젤라의 일기 속에 자신이 아니라 당시 아내가 런던의 가난한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한 일들이 나오자 가차 없이 그는 건너뛴다. 길버트는

자신이 반영되지 않는 일기 내용은 의미가 없었던 것이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에게 뭔가를 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며, 고통에 빠진 사람
에게 손을 내밀 수 있다. 그들의 행동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자기 몰두와 타인의 관
심에 대한 욕구는 자신이 무가치하다거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막기 위해 사
용하는 무의식적 방어다. (마르티네즈 루이 36)

안젤라가 자신만의 일을 하고자 했을 때 길버트가 승낙한 이유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몸짓이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내 또는 써시에게 보이
는 솔직하지 못한 길버트의 동정 또는 관심은 자신의 위안이며 상대를 확신시키
기 위해 무장된 연기술이었다. 관계 속에서의 진정한 공감은 상대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언제나 자신이 최고인 길버트는 타인, 즉
아내에게 충실할 수 없다. 이렇게 길버트는 사랑을 가장한 무관심으로 아내를 대
하고 그러는 동안 안젤라는 비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은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이다.

지워져 있는 일기 내용, 비엠이라는 머리글자가 그 남자(He)로 바뀐 사실, 한
장에 빼곡히 써놓은 이집트(Egypt)²라는 글자를 길버트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해석은 가능했다. 그 철면피가 아내에게 정부로서의 삶을 요구했을 거라고 일축
함으로써 길버트는 분노와 질투에 쌓인다. 고통으로 초토화된 길버트는 아내의
대답을 찾아 시선을 헤맨다.

‘나는 그에게 편지 한통을 썼다.’ 그 다음 페이지는 여백으로 남겨져 있었다. 그리
고 이 말이 있었다: ‘내 편지에 답장이 없다.’ 그리고 많은 페이지가 비어있었다; 그
리고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는 험박하던 일을 해버렸다.’ 그 이후로—그 후로 어
떻게 된 거지? 그는 페이지를 계속 넘겼다. 전부가 비어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죽
기 바로 전날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 또한 것처럼 행동할 용기가 있는가?’

‘I wrote him a letter.’ Then pages were left blank. Then there was this: ‘No
answer to my letter.’ Then more blank pages; and then this. ‘He has done

² 성경에서 이집트는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해야 할 땅이듯 안젤라 역시 남편과의 삶에서 탈출하고
싶은 욕구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장치로 읽어낼 수 있다. (Lavine 77 참고)

what he threatened.’ After that—what came after that? He turned page after page. All were blank. But there, on the very day before her death, was this entry: ‘Have I the courage to do it too?’ (2002)

시선이 멈추었을 때, 길버트는 일기장을 바닥에 떨어뜨린다. 그는 피카딜리 커브 길에서 주먹을 움켜쥔 안젤라가 차에 치이는 장면이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다. 분노에 찬 그는 전화로 씨시에게 비엠이 누구냐고 소리를 지른다. 긴 한숨 후 씨시는 비엠이 자신의 오빠라는 답변과 함께 더 이상의 어떤 설명이 필요하냐고 묻는다. 그러자 길버트는 “전혀”(Nothing!), “전혀”(Nothing!)라고 울부짖는다 (2002). 아내의 일기는 유산이며 진실이므로 왜 아내가 이러한 극도의 선택을 했는지 길버트는 관심을 기울여야만 한다. 그러나 더 이상의 설명을 거부하는 길버트는 “안젤라의 수수께끼를 이해하는 대신에 단지 성적으로 다른 남성을 좋아하는 한 여성”(Lavine 78)으로 아내를 본다. 안젤라는 남편을 사랑했으나 길버트는 오로지 자신만을 사랑한 것이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나르시시스트의 짝(아내)에 대한 인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짝(double)은 원래 자아의 파괴에 대한 보험이자, 랭크(Rank)가 지적하듯, 죽음의 힘에 대한 강력한 부정이었다. 아마도 불멸의 영혼은 몸에 대한 최초의 짝이었을 것이다. ...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은 무한한 자기애의 토양에서 비롯된 것으로, 아이와 미개인의 마음을 지배하는 일차적 나르시시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러나 이 단계가 성취되면, 짝은 정반대로 변한다. 불멸을 보장해주는 역할로부터 죽음의 섬뜩한 예고자로 바뀐다.

For the ‘double’ was originally an insurance against the destruction of the ego, an ‘energetic denial of the power of death’, as Rank says; and probably the ‘immortal’ soul was the first ‘double’ of the body. ... Such ideas, however, have sprung from the soil of unbounded self-love, from the primary narcissism which dominates the mind of the child and of primitive man. But when this stage has been surmounted, the ‘double’ reverses its aspect. From having been an assurance of immortality, it becomes the uncanny harbinger of death. (235)

남편의 이러한 속성을 간과한 안젤라는 그에게서 도망치기 위한 수단으로 차에 뛰어든 것이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대처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모든 대화의 끈을 자르기’(Bouchoux 134)인 것처럼 안젤라는 길버트의 정신적 각성을 위해 진실이라는 일기를 유산으로 남기고 자살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의 중요한 점은 길버트가 잘 아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한 여자, 곧 아내가 실은 자신과 삶을 공유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Kiely 88)라는 설명에서 보듯, 안젤라의 죽음은 “길버트가 아내와 결혼에 관해 가졌던 환상을 최종적으로 깨닫고”(Meyerowitz 246) 현실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III. 결 론

인간은 어느 정도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있다. 삶의 시작과 끝은 ‘나’이며, 세상 살이에서 주체는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또한 “자기 자신은 가장 좋은 친구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을 가장 사랑해야만 한다”(254)라고 말했다. 나르시시즘의 목표가 완전함을 추구하듯, 아리스토텔레스는 긍정적 성격의 나르시시즘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나르시시즘은 그 자체가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 건강한 나르시시즘, 즉 적당한 자기애는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해로운 나르시시즘, 즉 지나친 자기애는 호치키스가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역병처럼 번지고 있는 수많은 사회적 병폐들 배후에는 바로 나르시시즘이 도사리고 있다”(8)고 말하듯이, 주변 더 나아가 세상을 혼란으로 이끈다. 이러한 사회문화의 흐름에 비추어 「유산」을 여성·남성이라는 성의 불평등 이전에 다양한 인간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나르시시즘으로 읽어보았다.

삶이란 의식의 총체이므로 단선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누군가를 좋다거나 나쁘다로 판단하는 것도 어찌 보면 오만한 행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상적인 관계에서 엿볼 수 있는 타인의 행동 중에서 지나치게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끼며,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의 부류를 나르시시스트로 규정할 때 길버트는 이 범주에 속하는 인물이다. 나르시시스

트로서 길버트는 자신의 잣대로 타인을 규정한다. 그는 아내를 자신보다 지적인 면에서 늘 열등하다고 여기며, 독립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자신의 종속물로 인식한다. 길버트는 아내뿐만 아니라 주변인물까지도 자신의 주관대로 정형화시킨다. 항상 아내와 함께 자신의 일을 도우며 가족처럼 살아온 씨시도 그에게는 단지 우중충하고 자그마한 그런 부류의 수많은 여성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그는 아내의 일기 속에 등장하는 비엠을 여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의견을 떠벌이는 족대 없는 사람, 낮 동안에 정직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인간이라고 단정 짓는다. 비엠이 아내와 심각한 사이이며, 혁명의 필연성을 믿는 사회주의자로 자신과 반대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길버트는 상대의 자유의지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의 주관대로 타인을 속단한다. 그러므로 빌그라터(Rudolf Villgrader)가 「유산」은 “환상과 현실로 짜여있는 작품의 구조”(Lavine 77 재인용)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한 것처럼, 길버트는 오랜 세월동안 현실을 왜곡하고 환상의 세계에서 소통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아내가 자아를 찾는 순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조차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만 생각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젤라는 아내라는 이름으로 봉사해야만 하는 남편과 자신을 한 인간으로써 인정해주고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던 비엠 사이에서 고뇌하다가 결국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그녀의 죽음은 여성이기 이전에 한 인간 존재로서 나르시시스트에 맞선 항거이자 남편에 대한 최선의 예우였다.

오로지 자신만 생각하는 길버트에게 그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된 자신의 삶을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안젤라의 죽음은 길버트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타인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기회를 제공하리라 생각된다. 최근 각계각층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 운동’의 근저에는 다양한 ‘권력형 나르시시즘’이 존재한다. 이러한 건강하지 못한 나르시시즘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요즘, 이 글을 통해서 독자들 개개인이 자신을 점검해 보고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인 용 문 헌

- Aristotle. *Nicomachean Ethics*. Trans. Terence Irwin. Indianapolis: Hackett, 1985.
- Bouchoux, Jean-Charles. *Les pervers narcissiques*. Trans. Hyojeong Gwon. Seoul: Bada Publishing, 2017. Print.
[부슈, 장 샤를르. 『악성 나르시시스트와 그 희생자들』. 권효정 옮김. 서울: 바다출판사, 2017.]
- Briggs, Julia. “Virginia Woolf meets Sigmund Freud.” *Canvas Issue 18*.
<https://www.charleston.org.uk/virginia-woolf-meets-sigmund-freud/>
- Dermot, McManus. “The Legacy by Virginia Woolf” *TheSittingBee.com*. 24 Nov. 2015. Web.
25 Nov. 2017.
- Freud, S. “On Narcissism: An Introduction.”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Ed. James Strachey. 14 vols. London: The Hogarth Press, 1914. 73-102. Print.
- _____. *The Standard Edition of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Ed. James Strachey. 24 vols. London: The Hogarth Press, 1953-1974. Print.
- Hotchkiss, Sandy. *Why Is It Always about You?: The Seven Deadly Sins of Narcissism*. Trans. Sejin Lee. Seoul: Gyooyangin, 2004. Print.
[호치키스, 샌디. 『사랑과 착취의 심리학』. 이세진 옮김. 서울: 교양인, 2004.]
- Kernberg, Otto.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Jason Aronson, 1975. Print.
- Kiely, Robert. *Beyond Egotism: The Fiction of James Joyce, Virginia Woolf, and D. H. Lawren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0. Print.
- Lavine, Ann. “The Legacy.”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The English Journal* 75.2(1986): 74-78. Print.
- Martinez-Lewi, Linda. *Freeing Yourself from the Narcissist in Your Life*. Trans. Jeongeun Song. Seoul: Surinja, 2011. Print.
[마르티네즈 루이, 린다. 『왜 그 사람은 자기밖에 모를까』. 송정은 옮김. 서울: 수린재, 2011.]
- Meyerowitz, Selma. “What Is to Console Us? The Politics of Deception in Woolf’s Short Stories.” *New Feminist Essays on Virginia Woolf*. Ed. Jane Marcus.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81. 238-52. Print.
- Moore, Burness E. & Fine Bernard D. ed. *Psychoanalytic Terms and Concept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1. Print.
- Wardetzki, Bärbel. *Narzissmus, Verführung und Macht in Politik und Gesellschaft*. Trans. Jihye Lee. Seoul: Wiseberry, 2018. Print.

[바르데츠키, 베르벨. 『나르시시스트 리더: 왜 우리는 문제적 리더와 조직에 현혹 되는가』. 이지혜 옮김. 서울: 와이즈베리, 2018.]

Woolf, Virginia. "Modern Fiction." *The Essays of Virginia Woolf*. 4 vols. 1925 to 1928. Ed. Andrew McNeille. London: The Hogarth Press, 1984. 157-65. Print.

_____. *The Diary of Virginia Woolf*. 2 vols. Ed. Anne Olivier Bell. San Diego: Harcourt, 1978. Print.

_____. "The Legacy"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2 Vols. Ed. M. H. Abrams. 6th ed.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1. 1998-02. Print.

박부순

주소: (54622)전북 익산시 남중동 인북로 240

이메일: kkk193@naver.com

논문접수일: 2018. 06. 30 / 심사완료일: 2018. 07. 31 / 게재확정일: 2018. 08. 08